

아동용 간편 5요인 성격검사 타당화 연구*

이 선 희^{1)†}

¹⁾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최 영 임^{1),2)}

²⁾한국표준과학연구원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 관찰자뿐만 아니라 아동 본인들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동용 성격 5요인 성격검사를 구성하고, 이 척도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표본을 사용한 두 개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1에서는 Big-Five Scale for the California Child Q-Set(John et al., 1994)에 대한 초등학교 6학년생(N=447)과 부모 응답 자료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격 5요인의 구성개념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18개 문항의 성격 5요인 척도를 구성하였다. 연구 2에서는 초등학생 5, 6학년생(N=334)과 그들의 부모 및 교사로 이루어진 표본으로부터 연구 1에서 구성된 성격 5요인 척도 및 성격 5요인과 관련성을 가지는 변인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2에서 성격 5요인 척도 자료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과 부모자료 모두에서 수용할 만한 전반적 적합도를 보였으며, 문항들의 요인부하값도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다. 또한 성격 5요인에 대한 아동과 부모의 평가 간 상관계수들도 기존 연구들에서 보고된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격 5요인과 관련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도 기존의 연구결과와 대체로 일치하여 추가적인 구성타당도 증거를 제공하였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결과들은 본 연구에서 구성된 아동용 간편 성격 5요인 척도의 타당도를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의 함의, 제한점, 그리고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격 5요인, 아동, 타당화, 성격 검사, 요인분석, 학업성취, 사회적 유능성, 자기존중감, 내재화 문제, 외재화 문제

* This study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research fund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 2009

† 교신저자: 이선희,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Tel: 042-821-6370, E-mail: sunhee_lee@cnu.ac.kr

성격 5요인 모형의 등장은 연구자들에게 성격의 구조에 대한 공유된 틀을 제공해 줌으로써 성격 연구의 부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Costa & McCrae, 1992; Goldberg, 1990). 그런데 이러한 성격 5요인 모형에 대한 타당성 증거는 대부분 성인 집단에만 국한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성격 5요인 모형이 아동 및 청소년기의 성격 차이를 기술하는데도 유용한 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경험적 증거들이 다양한 문화권의 아동 및 청소년들의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예: De Fruyt, Mervielde, Hoekstra, & Rolland, 2000; Halverson, Havill, Deal, Baker, Victor, Pavlopoulos, et al., 2003; Resing, Bleichrodt, & Dekker, 1999).

또한 성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성격 5요인이 아동 및 청소년들의 친구 관계, 문제 행동, 정신건강, 그리고 학업 성취 등 해당 발달 단계에서의 중요한 결과변인들과 유의한 관련이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예: Digman, 1989; Gilles & Bailleux, 2001; John, Caspi, Robins, Moffitt & Stouthamer-Loeber, 1994; Markey, Markey, & Tinsley, 2003; Shiner, 2000). 이러한 결과들은 성격 5요인 모형이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아동기의 성격에 대한 전반적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동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성격 5요인 모형이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면, 전생애적인 성격 발달 연구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격의 안정성 혹은 변화경향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아동과 성인 모두에게 의미있는 성격 모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성격 5요인 모형의 공헌 가능성을 고려할 때, 아동을 대상으로 성격 5요인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확

보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아동 대상 연구의 특성상 아동의 주의집중시간을 고려한 비교적 적은 수의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에 대한 요구가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격 5요인을 신뢰롭고 타당하며 편리하게 측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성격 5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측정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동기의 성격 5요인 연구

연구자들에 따라서 5요인의 이름과 정의가 다소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외향성(extraversion)은 활동적인 것을 선호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는 경향성을 말한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말이 많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며,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행동을 보인다. 우호성(agreeableness)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을 의미하는데, 우호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들은 신뢰롭고, 솔직하며, 이타적이고, 겸손하며, 가능하면 대인간 갈등을 회피하려는 경향성을 가진다. 성실성은 주로 목표지향적인 행동과 충동통제적인 측면과 관련이 된다. 성실성(conscientiousness)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유능하다고 지각하며, 책임감이 높고, 조직적이며, 성취지향적이다.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은 불안, 두려움, 화, 슬픔, 죄책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쉽게 경험하지 않는 경향성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은 한 개인의 정신적, 존재론적 삶의 깊이, 복잡성, 질을 기술하는 성격특질로서,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상상력,

미적 감수성, 내면의 느낌에 대한 수용성, 지적 호기심 등이 강하며 다양한 가치와 활동에 개방적인 특징을 가진다(Costa & McCrae, 1992; Shiner & Caspi, 2003). 학자들(예, Goldberg, 1990)에 따라서는 5번째 요인을 지성(intellect)으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지성은 영리하고, 배우는 것을 즐기고, 빨리 배우는 등의 행동 경향성을 포함한다.

그런데 성격 5요인 중 정서적 안정성, 외향성, 성실성, 우호성은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반면, 개방성 요인은 연구에 따라 포함되는 성격특질들이 덜 일관적이며, 척도의 내적 일치도도 낮은 경향이 있다(Caspi, Roberts, & Shiner, 2005; Shiner & Caspi, 2003). 예를 들어, Halverson 등(2003)의 연구에서는 중국, 그리스, 네덜란드, 그리고 미국 등의 7개의 나라의 3세에서 12세 아동의 부모들에게 자녀의 특성을 자유롭게 묘사하도록 한 후, 이 응답들을 바탕으로 14개의 중간수준의 성격특질 척도를 구성하였다. 이 14개의 척도에 대한 응답을 요인분석한 결과, 5요인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런데 우호성,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은 기존의 성격 5요인 모형과 매우 유사하였으나, 다섯 번째 요인은 ‘똑똑한,’ ‘학습능력이 좋은,’ ‘배우는 데 관심이 많은’ 등의 지성(intellect) 척도로만 구성되었고, ‘상상력이 좋은,’ ‘호기심이 많은,’ ‘새로운 것에 관심이 있는’ 등의 개방성(openness) 척도는 외향성 요인에 속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Goldberg (2001)가 John M. Digman이 1959-1967년에 걸쳐 수집한 아동 성격자료를 재분석한 연구에서도 다섯 번째 요인이 지성과 관련된 특질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2.3세부터 15.2세에 이르기까지 5차례에 걸쳐 성격 5요인을 측정

한 Lamb, Chuang, Wessels, Broberg와 Hwang (2002)의 연구에서는 다른 성격요인들의 척도는 아동의 나이가 증가하면서 내적 일치도가 증가하는 반면, 개방성 척도는 15세 자료에서도 신뢰도가 여전히 낮게 나타났다(alpha=.52). 12-13세들의 남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John 등(1994)의 연구에서도 다른 요인들의 신뢰도는 .73 이상인데 비해, 개방성 요인만 .53으로 낮았다. 또한 De Fruyt 등(2000)은 12-17세의 청소년들이 NEO-PI-R(Costa & McCrae, 1992)의 개방성 하위 척도인 ‘아이디어’와 ‘가치’에 속하는 문항들에 대해 응답의 어려움을 느껴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아동기의 성격 5요인 측정

자기보고를 주로 사용하는 성인 연구와는 달리 아동의 성격 측정은 부모(예: Halverson et al., 2003; John et al., 1994; Lamb et al., 2002)와 교사(예: Digman & Shmelyov, 1996; Goldberg, 2001; Mervielde, Buyst, & De Fruyt, 1995; Resing et al., 1999)의 평가가 주로 이용되어 왔다. 아동의 인지 능력 발달 단계 및 주의집중기간의 제한성을 고려할 때, 교사와 부모가 아동 성격 특질에 대한 중요한 정보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관찰자를 이용한 성격 평정은 관찰자가 대상의 내적 감정과 사고를 관찰하기 어려우며, 해당 맥락(즉, 학교 또는 가정)에서의 제한된 관찰 기회만을 가진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일부 연구자들은 아동 집단에서의 성격 5요인 모형의 타당성의 증거로서 부모나 교사의 평가자료만을 이용하는 것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즉, 이러한 증거들이 과연 아동의 성격구조를

입증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찰자인 성인들의 내재적 성격 이론을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Measelle, John, Ablow, Cowan, & Cowan, 2005).

아동의 성격 측정시 자기 보고가 잘 사용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과연 아동들이 본인의 성격 특질이나 행동 경향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보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자기보고식 성격측정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고 있다(Barbaranelli, Caprara, Rabasca, & Pastorelli, 2003; De Fruyt, Bartels, Van Leeuwen, De Clercq, Decuyper, & Mervielde, 2006; Measelle et al., 2005; Quartier & Rossier, 2008). 우선, Measelle 등의 연구에 따르면, 6-7세 아동들도 대학생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성격 5요인을 변별할 수 있으며, 아동 보고한 성격 5요인이 부모와 교사가 평가한 행동평가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 어느 정도의 외적 타당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 4-5학년 학생(평균 연령=10.1세)들과 중학교 6, 7, 8학년(평균 연령=12.4세)을 대상으로 한 Barbaranelli 등의 연구에서는 외향성, 우호성, 외향성, 개방성에 대해 초등학교 4-5학년 학생들의 자기보고 응답과 어머니의 평가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26-.52$). 그러나 성실성의 경우는 본인 평가와 어머니의 평가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이들 초등학교 4-5학년 학생들의 자기보고는 개방성을 제외한 모든 성격요인에서 교사의 평가와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중학생 집단에서는 5요인 모두에서 어머니 평가뿐만 아니라 교사 평가와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와 유

사하게, Quartier와 Rossier(2008)에서도 8-9세의 아동들에 비해서 11-12세의 아동들의 자기보고 자료의 내적 일치도 신뢰도가 더 높았으며, 부모 평정과의 상관계수도 더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아동 초기에서부터 성격 5요인을 어느 정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10-11세에 이르면 평가자간 신뢰도와 외적 타당도의 측면에서 상당히 안정된 자기보고 응답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성격 5요인을 측정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예: 광혜숙, 2010; 김봉화, 2009; 김옥희, 2008; 김혜진, 2009; 이경희, 고재홍, 2006; 이금화, 2010; 정은영, 2002). 이 연구들의 연구참여자는 주로 초등학교 4-6학년으로, 흥미롭게도 우리나라 연구들은 모두 성격 측정시 아동의 자기보고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성격 5요인 척도들을 살펴보면, 첫째, 성인용 척도를 그대로 이용한 경우(예: 김민정, 2006), 둘째, 성인용 척도의 문항 수를 줄이고 문항을 아동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한 경우(예: 광혜숙, 2010; 김봉화, 2009; 이경희, 고재홍, 2006),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용으로 별도 제작한 척도들을 이용한 경우(예: 김혜진, 2009; 정은영, 2002)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성인용 척도를 그대로 혹은 수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타당화 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반면, 아동용으로 제작된 척도들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타당화 연구를 토대로 개발되었다. 아동용으로 제작된 척도들은 문항 수가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¹⁾ 이는 5요인 아래의 세

1) 한국가이던스(안현희, 안창호, 김동일, 2006)의 NEO 성격검사는 146문항, 한국적성연구소(한태영, 1999)의 Big 5 성격특성검사는 210문항, 김봉

부 특질들을 신뢰롭게 측정하기 위한 조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가 세부 특질이 아닌 5요인 수준의 성격 특질에 관심이 있는 경우 150-200여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5요인 성격척도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닐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격 5요인과 아울러 다른 관심 구인들을 함께 측정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보다 적은 문항 수로 성격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에 대한 연구자들의 요구가 크다. 실제로 이러한 연구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10문항짜리 성격 5요인 척도가 개발되기도 하였다(Gosling, Rentfrow, & Swann, 2003; Rammstedt & John,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John 등(1994)이 California Child Q-Set(CCQ; Block & Block, 1980) 문항으로 개발한 성격 5요인 척도를 기초로 하여, 적은 수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아동 자기보고용 성격 5요인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100문항으로 이루어진 CCQ(Block & Block, 1980)는 원래 Q-Sort 방법을 이용하여 전문가들이 아동의 성격을 묘사하는데 이용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이후 Caspi 등(1992)이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John 등(1994)은 100개의 항목 중에서 개념적으로 성격 5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적합한 78개의 문항을 선별한 후 문항분석을 통해 최종 4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성격 5요인 척도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성격 5요인 척도를 12-13세의 청소년들에게 적용한 결과, 개방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의 내적 신뢰도가 .71을 넘고, 외재화 문제, 문제행동, 학교 성적 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48문항은 이후 유치원 아동에서 청소년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연령집단의 성격 5요인을 측정하는데 널리 사용되었다(예; Brown, Mangelsdorf, Agathen, & Ho, 2008; Gjerde & Cardilla, 2009; Huey & Weisz, 1997; Lamb et al., 2002; Robins, John, Caspi, Moffitt, & Stouthamer-Loeber, 1996). 특히, Parker와 Stumpf(1998)는 Q-sort 방식으로 개발된 CCQ를 7점 리커트식으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고학년용 자기보고식 간편 성격 5요인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우선 연구 1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생과 그들의 보호자들에게 John 등(1994)의 아동용 성격 5요인 척도 문항들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아동과 보호자의 응답을 분석하여 성격 5요인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선별하였다. 또한 연구 2에서는 독립적인 표본을 이용하여 연구 1에서 선별된 문항에 대한 초등학교 5-6학년생과 그들의 보호자의 응답자료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성격 5요인들과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진 구성개념들과의 관계성을 검토하여 새로 구성된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지지하는 증거를 수집하였다.

연구 1

연구 1의 목적은 초등학교 6학년생과 그들의 보호자들의 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성격 5요인 척도의 신뢰도와 요인구조를 검토하여 아동용 성격 5요인 척도를 수정 보완하는 것이다.

화(2009)의 성격 5요인 척도는 1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 법

연구참여자 및 절차

D시에 소개한 2개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6학년 학생 447명(남학생: 215명, 여학생: 232명)과 학생들의 보호자 중 한명(부 또는 모)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학생들은 학급에서 집단적으로 성격설문에 응답하였으며, 보호자들은 학생을 통해 설문지를 가정에 배포하여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의해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담임교사가 통해 회수하였다.

측정도구

성격 5요인 척도

아동의 성격을 측정하기 위하여 Big-Five Scale for the California Child Q-Set(John et al., 1994)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향성(9문항, 예: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말로 많이 표현하지 않는다(-))과 우호성(13문항, 예: 나는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한다), 성실성(9문항, 예: 나는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 정서적 안정성(10문항, 예: 나는 걱정이 많다(-)) 및 경험에 대한 개방성(7문항, 예: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경험하는 것을 좋아한다)의 다섯 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용 설문에는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식 척도를 이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부모용 설문에서는 아동의 문항에서 ‘나는’을 ‘우리 아이는’으로 수정하

여(예: 우리 아이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사용하였다.

분석 및 결과

각 5요인 성격특질을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문항 선별을 위해 우선 아동 및 보호자 응답자료에 대해 각각 SPSS 15.0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수는 5개로 고정하였고, 요인추출방법과 회전 방법으로 각각 주축분해방법과 direct oblimin 사각회전을 이용하였다²⁾.

각 요인당 4개의 문항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동 응답과 보호자 응답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각 문항이 원래 측정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성격 요인에 대해 요인부하량이 높고 그렇지 않은 다른 요인에 대한 요인부하량이 낮은 문항을 선택하였다. 또한 성격 5요인별 정의를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 결과, 개방성 문항을 제외하고는 의도한 대로 요인당 4개의 문항이 선정되었다. 원래 CCQ의 48문항 중 개방성을 측정하는 문항은 7개였으나, 이중 ‘나는 똑똑하다(성적과 관계없이)’라는 문항 등 지성(intellect) 또는 지적 호기심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성실성 요인의 부하량이 높게 나와 배제하였다. 결과적으로 개방성 요인은 상상력 또는 창의성 등을 반영하는 2개의 문항만이 선정되었다. 표 1은 선정된 18개의 문항에 대한 아동 응답자료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및 각 요인척도의 Cronbach's α 를 제시하고 있으며, 표 2는 보호자 응답자료

2) 원상관행렬표와 48문항 전체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제1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표 1. 아동용 성격 5요인 검사에 대한 아동 응답자료 요인분석결과 및 척도별 문항간 일치도 (N=447)

문항	요인명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우호성	외향성	개방성
1. 나는 의지가 강해서 내가 하는 일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69	-.11	-.03	.01	.01
2. 나는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	.64	-.01	-.02	-.03	.02
3. 나는 많은 것을 능숙하게 잘 할 수 있다.	.50	-.06	.18	.03	.15
4. 나는 나에 대한 기준이 높아서 내가 하는 일을 매우 잘 해야 한다.	.50	.12	.05	-.01	.04
5.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쩔 줄 몰라한다.	-.03	.75	-.03	.05	-.05
6.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얼어버리거나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한다.	.06	.65	-.12	.05	-.03
7. 나는 일이 잘못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아프곤 한다.	-.02	.62	.02	.01	-.01
8. 나는 놀림을 받거나 비판을 받으면 쉽게 상처 받는다.	-.07	.51	.09	-.10	.04
9. 나는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한다.	-.05	-.04	.74	-.03	.03
10. 나는 사려깊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	-.05	.07	.69	-.01	.08
11. 나는 가까운 사람을 보호해 준다.	.23	-.10	.42	.08	-.05
12. 대부분의 어른들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22	.02	.41	.12	.02
13. 나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10	.17	.02	.58	.06
14. 나는 생각과 느낌을 혼자 간직하기를 좋아한다.	-.04	-.18	.10	.48	-.07
15. 나는 나를 남에게 편하게 드러내기가 힘들다.	-.15	-.35	-.01	.46	-.06
16. 나는 말이 많다.	.06	.05	-.02	.28	.25
17. 나는 사물을 보는 방식이 창의적이다.	.02	-.05	.00	-.05	.77
18. 나는 상상력이 풍부하다.	.03	-.03	.09	.02	.75
초기고유값	4.04	2.70	1.31	1.26	1.05
전체 변량 중 요인별 고유값의 비율 (5개 요인의 합=57.58%)	22.43	15.01	7.29	7.01	5.84
정서적 안정성	.02				
우호성	.44	.15			
외향성	.17	.01	.03		
경험에 대한 개방성	.34	.05	.34	.02	
Cronbach's α	.72	.72	.71	.51	.76

표 2. 아동용 성격 5요인 검사에 대한 부모 응답자료 요인분석결과 및 척도별 문항간 일치도 (N=447)

문항	요인명				
	우호성	정서적 안정성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
1. 우리 아이는 사려깊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	.79	.01	-.08	.00	.08
2. 우리 아이는 가까운 사람을 보호해 준다.	.64	-.08	.01	-.06	.14
3. 우리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한다.	.64	.11	.04	.04	-.06
4. 대부분의 어른들은 우리 아이를 좋아하는 것 같다.	.48	-.06	.02	.15	.03
5. 우리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쩔 줄 모른다.	-.06	.73	.06	-.08	.17
6. 우리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얼어버리거나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한다.	-.15	.57	-.13	-.03	.11
7. 우리 아이는 놀림을 받거나 비판을 받으면 쉽게 상처 받는다.	.15	.53	-.01	-.07	-.12
8. 우리 아이는 일이 잘못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아프곤 한다.	.00	.45	-.03	.12	.01
9. 우리 아이는 생각과 느낌을 혼자 간직하기를 좋아한다.	-.16	-.15	.70	-.02	-.03
10. 우리 아이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10	.10	.58	.08	.02
11. 우리 아이는 나를 남에게 편하게 드러내기가 힘들다.	.09	-.17	.50	-.13	-.05
12. 우리 아이는 말이 많다.	-.05	.09	.40	.06	.13
13. 우리 아이는 의지가 강해서 내가 하는 일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04	-.10	-.01	.74	.02
14. 우리 아이는 나에 대한 기준이 높아서 내가 하는 일을 매우 잘해야 한다.	.06	.21	-.01	.62	-.04
15. 우리 아이는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	.08	-.13	.09	.59	.09
16. 우리 아이는 많은 것을 능숙하게 잘 할 수 있다.	.18	-.13	.01	.40	.32
17. 우리 아이는 상상력이 풍부하다.	.11	.07	.05	-.04	.70
18. 우리 아이는 사물을 보는 방식이 창의적이다.	.08	.02	.06	.13	.67
초기 고유값	4.00	2.50	1.69	1.49	0.97
전체 변량 중 요인별 고유값의 비율 (5개 요인의 합=59.12%)	22.21	13.88	9.38	8.28	5.37
정서적 안정성	.00				
외향성	.13	.25			
성실성	.33	.03	.10		
경험에 대한 개방성	.30	.13	.30	.42	
Cronbach's α	.75	.65	.63	.74	.74

에 대한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아동 응답자료의 요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5개 요인의 초기고유값은 전체 변량 57.58%를 설명하였으며, 각 문항의 요인부하값들은 대체로 의도된 해당 요인에 대한 요인부하값이 가장 높고 다른 요인에 대한 요인부하값은 낮게 나타나는 단순구조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요인들 간의 상관 계수는 중간 정도이거나 대체로 낮았다. 즉, 성실성과 우호성($r=.44$), 성실성과 개방성($r=.34$), 우호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r=.34$)를 제외하고는 상관계수가 .17 이하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내적 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α 로 계산한 각 요인의 신뢰도는 성실성은 .72, 정서적 안정성은 .72, 우호성은 .71, 외향성 .51, 경험에 대한 개방성 .76으로 나타나, 문항의 수를 고려할 때 외향성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에 대한 신뢰도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표 2에 제시된 보호자 평가 자료의 분석결과에서는 5개 요인의 초기고유값은 전체 변량 59.1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 자료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단순구조의 특성을 보였다. 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우호성과 성실성($r=.33$), 우호성과 개방성($r=.30$), 개방성과 외향성($r=.30$), 그리고 개방성과 성실성($r=.42$) 간의 상관계수가 .30 이상이었으며, 그 외에는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Cronbach's α 로 계산한 요인들의 신뢰도는 우호성은 .75, 정서적 안정성은 .65, 외향성은 .63, 성실성은 .74, 개방성은 .74로 대체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할 때, 연구 1에서 선정된 문항들은 대체로 양호한 심리측정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특정한 단일 표본자료를 기초로 선정된 문항에

대한 분석결과이기 때문에 자료의존적일 수 있다. 따라서 독립적인 표본자료를 통해서도 이러한 심리측정적 특성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구 2

연구 2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연구 1에서 선정된 성격 5요인 문항들에 대해 독립된 표본으로부터의 응답자료를 수집하여, 의도된 대로 성격 5요인 구조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는 아동의 성격에 대한 아동 본인과 보호자의 평가 간의 일치도를 살펴봄으로써 추가적인 타당도의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Barbaranelli 등(2003)에서는 성격 5요인에 대한 초등학교 4-5학년 학생들의 자기보고 응답과 어머니의 평가 간의 상관계수가 .02에서 .52로 나타났고, Quartier와 Rossier(2008)의 연구에서는 만 11-12세의 아동에 대한 부모와 아동 본인의 평정간의 상관이 .36에서 .5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 2의 목적은 각 성격 5요인과 기존 연구들에서 이들과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된 주요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를 측정된 5요인 점수가 기존의 연구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해당 변인들과 관련성을 가진다면, 이는 본 척도의 타당도를 지지하는 하나의 증거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아동 본인뿐 아니라 부모 및 교사에게 관련 변인에 대한 평가를 받고 시험 성적과 같이 비평정자료를 이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으로 변인들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성격 5요인과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격 5요인 중 우호성과 외향성은 아동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 과업 중의 하나인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관련성은 적지만, 정서적 안정성과 성실성도 사회적 유능성과 정적인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Jensen-Campbell, Adams, Perry, Workman, Furdella, & Egan, 2002; Kanning, 2006; Shiner, 2000).

둘째, 성격 5요인은 아동 및 청소년들의 자기존중감과 정적인 관련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Graziano, Jensen-Campbell, & Finch, 1997; Robins, Tracy, Trzesniewski, Potter, & Gosling, 2001). 예를 들어, Robins 등(2001)의 연구에 따르면 9-12세의 아동들이 보고한 성격 5요인과 자기존중감이 요인에 따라 $r=.22-.36$ 정도의 정적 관계를 보였다.

셋째, 성격 5요인 중 성실성은 아동의 학업 성취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igman, 1989; Gilles & Bailleux, 2001; John et al., 1994; Shiner, 2000). 연구에 따라서 경험에 대한 개방성(John et al., 1994) 및 우호성(Shiner, 2000)도 학업성취도와 정적인 관련성을 보인다는 결과들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이들 성격요인들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는 성실성에 비해 비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넷째, 우호성 및 성실성은 비행과 위험행동 등의 외재화된 문제와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e Pauw, Mervielde, & Van Leeuwen, 2009; John et al., 1994), 외재화된 문제는 정서적 안정성과 외향성과도 어느 정도

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호성과 성실성에 비해서는 덜 일관적이다(De Pauw et al., 2009; John et al., 1994; Krueger, Caspi, Moffitt, Silva, & McGee, 1996; Lynam, Caspi, Moffitt, Raine, Loeber, & Stouthamer-Loeber, 2005; Prinzie & Dekovic, 2008; Markey et al., 2003).

다섯째, 성격 5요인과 심리장애 증상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Malouff, Thorsteinsson, & Schutte, 2005)에 따르면, 우울, 불안, 신체 증상 등의 내재화된 문제는 정서적 안정성과 관계가 가장 높고, 그 다음 성실성, 외향성, 우호성 순으로 부적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논의된 성격 5요인과 관련변인들간의 관계를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가설로 제시하였다. 또한 표 3은 이러한 가설과 함께 관련변인의 평정원(아동, 보호자, 교사, 시험성적 등)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가설 1: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 및 정서적 안정성은 사회적 유능성과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2: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및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자기존중감과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3: 성실성은 학업성취도 및 학업수행 능력과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4: 우호성과 성실성은 외재화 문제(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 문제, 비행, 공격성)와 부적의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5: 정서적 안정성, 성실성, 외향성, 우호성은 내재화 문제(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와 부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표 3. 아동용 성격 5요인 검사와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설 정리

관련변인(평정자)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개방성
사회적 유능성					
사회적 능력(아동)	++	++	+	+	
학교에서의 사회적 적응성(교사)	++	++	+	+	
자기존중감 (아동)					
	+	+	+	+	+
학업성취능력					
학업성취능력(시학력평가)		?	+		?
학업수행능력(교사)		?	+		?
외재화 문제					
사회적 미성숙(부모)	?	-	-	?	
사고의 문제(부모)	?	-	-	?	
주의집중 문제(부모)	?	-	-	?	
비행(부모)	?	-	-	?	
공격성(부모)	?	-	-	?	
내재화 문제					
신체적 증상(부모)	-	-	-	--	
위축(부모)	-	-	-	--	
우울/불안(부모)	-	-	-	--	
우울(아동)	-	-	-	--	
불안(아동)	-	-	-	--	

주) +: 정적 상관, -: 부적 상관(++와 --는 상대적으로 다른 요인보다 강한 정적, 부적 상관), ?: 비일관적인 상관관련성이 기대되는 것을 표시하며, 빈 칸은 상호관련성이 기대되지 않는 것을 뜻함

방 법

연구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의 참여자는 D시에 소재한 2개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학년 학생 180(남학생: 80명, 여학생: 100명)명과 6학년 학생 154(남학생: 68명, 여학생: 86명)명과 이 334명 학생의

보호자(부 또는 모)와 담임교사였다. 학생 자료는 설문지의 양을 고려하여 두 차례로 나누어 학급에서 단체로 수집하였다. 부모 자료는 설문지를 가정에 배포하여 보호자(부 또는 모)에 의해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교사 자료는 교사 본인의 학급 학생들 각각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아동용 설문은 성격 5요인 검사, 소아우울

척도, 사회적 능력척도, 자기존중감 척도, 소아용 특성불안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보호자용은 아동 5요인 성격검사,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K-CBCL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본인의 학급에 속한 아동들 각각에 대하여 아동의 또래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 평정하였다(표 3 참조).

측정도구

아동용 성격 5요인 척도

아동의 성격을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 1을 통해 선정된 18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부모용 척도는 아동의 문항에서 ‘나는’을 ‘우리 아이는’으로 수정하여(예: 우리 아이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사용하였다. 아동용과 부모용 척도 모두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에 해당하는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내적 일관성 계수인 Cronbach' α 로 측정한 신뢰도 계수는 외향성 .52(부모: .66), 우호성 .62(부모: .73), 성실성 .66(부모: .79), 정서적 안정성 .66(부모: .56), 경험에 대한 개방성 .66(부모: .74)로 나타났다.

사회적 능력 척도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이은혜, 신숙재 및 송영주(1992)가 타당화한 아동용 자아지각척도(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Harter, 1985: 이은혜, 신숙재, 송영주, 1992에서 재인용)의 하위 척도인 사회적 수용능력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6개 문항(예: 나는 친구를 사귀기가 쉽다)을 포함하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계산된 Cronbach' α 는 .78이었다.

학교에서의 사회적 적응성

학교 장면에서의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담임교사에게 아동들의 ‘동성 친구와의 또래관계’와 ‘이성 친구와의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 및 ‘학급활동 능력’의 4개 항목에 대해 각각 1점(전혀 잘 적응하지 못한다)에서 5점(매우 잘 적응한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 형태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Cronbach' α 신뢰도 계수는 .84로 나타났다.

자기존중감 척도

아동의 자기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장휘숙(1998)이 번안한 Rosenberg(1979)의 자기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체 10개 문항의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나는 대체로 나 자신에 만족한다). 본래 응답 척도는 1점에서 4점까지의 리커트 척도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른 척도의 응답양식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범위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더 높은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 척도의 Cronbach' α 신뢰도 계수는 .84이었다.

학업성취도

아동들의 학업성취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첫째는 본 연구자료가 수집된 학기에 교육청에서 주관한 시학력 평가의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점수의 평균(이하의 시험평균)으로 측정하였다. 시험평균 점수의 전체 평균은 90.26점이고 표준편차는 7.63점이었다. 둘

제는 아동의 '학업수행'에 대해 교사가 1점(전혀 잘 적응하지 못한다)에서 5점(매우 잘 적응한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 형태로 응답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K-CBCL

아동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Achenbach와 Edelbrock의 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를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1997)가 타당화한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인 K-CBCL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I. 위축(예: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II. 신체증상(예: 매우 피곤해 한다), III. 우울/불안(예: 외롭다고 불평한다), IV. 사회적 미성숙(예: 나이에 비해 너무 어리게 행동한다), V. 사고의 문제(예: 계속 같은 생각들이 되풀이돼서 떨쳐 버리려고 해도 못한다), VI. 주의집중문제(예: 집중력이 없고 어떤 일에 오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VII. 비행(예: 나쁜 일을 저지르기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VIII. 공격성(예: 말다툼을 자주한다)과 기타요인(예: 허풍치고 자랑을 많이 한다)의 9개 하위요인과 성문제(예: 여자(남자)처럼 행동한다) 및 정서불안정(예: 잘 운다) 요인의 2개 특수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113개의 문항을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는 기타요인과 두 가지 특수척도를 제외한 8개 하위척도만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가 아동의 행동을 관찰한 후 6개월 동안 발생한 아동의 문제행동의 빈도에 따라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에 해당하면 0점, '그러한 경향이 조금 있는 편이다'에 해당하면 1점, '그러한 일이 자주 있다'에 해당하면 2점에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문제행동의 경향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계수로 측정된 이 척도의 신뢰도는 위축 .76, 신체증상 .65, 우울/불안 .79, 사회적 미성숙 .72, 사고의 문제 .44, 주의집중 문제 .80, 비행 .58, 공격성 .85로 나타났다.

소아우울 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아동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조수철과 이영식(1990)의 소아우울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Beck의 우울척도(Beck's Depression Inventory, BDI, 1967: 조수철, 이영식, 1990에서 재인용)를 7-17세의 연령에 맞도록 개발한 Kovacs (1985)의 우울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이하 CDI)를 한국에 맞게 타당화한 척도이다.

전체 27개 문항의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주 동안 자신의 기분상태를 그 정도에 따라 0점에서 2점까지의 3점 리커트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예: 나는 가끔 슬프다-0점, 나는 자주 슬프다-1점, 나는 항상 슬프다-2점). 점수는 0-54점 사이에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는 .83이었다.

소아특성불안 척도

아동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조수철과 최진숙(1989)이 Spielberger(1973; 조수철, 최진숙, 1989에서 재인용)의 아동용 상태-특성 불안 검사(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s (STAIC)]를 번안하여 제작한 소아용 상태특성 불안 척도 중 특성불안척도 2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예: 나는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이 척도는 1점 '그런 일이 거의 없다'에서 2점 '자주 그렇다'의 3점 리커트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총 점수는 20-60점 사이

에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불안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내적일관성 계수로 측정된 이 척도의 신뢰도는 .92이었다.

분석 및 결과

아동용 성격 5요인 검사에 대한 아동 및 부모 응답 자료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성격 5요인 모형이 연구 1에서 선정된 아동용 성격 5요인 검사 문항들에 응답자료를 설명하기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동의 자기보고 성격 자료와 부모가 평정한 성격 자료에 대해 각각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³⁾.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Amos 7.0을 사용하였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문항은 그 문항이 측정하는 것으로 가정된 해당 성격 요인을 제외한 다른 4개의 요인에 대해서는 부하값을 0으로 고정시켰으며, 각 요인간의 공변량은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하였다. 잠재변인에 척도를 부여하기 위해서 측정변인 중의 하나의 요인계수값을 1.0으로 고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에 대한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RMSEA, CFI, 그리고 TLI를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RMSEA의 경우 .05 이하면 좋은 적합도, .08 이하면 적절한(reasonable)한 적합도, .10 이상이면 좋지 않은 적합도를 나타낸다고 해석되며, TLI와 CFI의 경우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보인다고 해석된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 자료의 경

3) 측정변인들간의 원상관행렬표는 제1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우는 RMSEA=.05, CFI=.89, TLI=.87, 그리고 부모자료에서는 RMSEA=.06, CFI=.89, TLI=.86으로 나타났다. 즉, RMSEA는 좋은 적합도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는 반면, CFI와 TLI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준점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런데, 성격 5요인 응답 자료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적용한 기존 연구들(Church & Burke, 1994; McCrae, Zonderman, Costa, Bond, & Paunone, 1996; Parker, Bagby, & Summerfeldt, 1993)에서 모두 전반적인 적합도 수준이 매우 좋지 않아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2차 또는 3차 요인 부하까지도 허용하는 모형을 채택하는 전략이 수용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적합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아동용 성격 5요인 척도를 타당화한 Barbaranelli 등(2003)의 연구에서도 CFI값이 집단에 따라 .83-.90이었으며, RMSEA 값이 .059-.030으로 나온 것에 대해 성격 5요인 척도에 대한 적합도로는 매우 좋은 것이라고 해석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의 성격 5요인과 문항 간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즉, 각 문항의 요인부하값과 요인간 상관계수를 그림 1(아동자료)과 그림 2(부모자료)에 제시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자기 평가자료와 부모의 평정자료 모두에서 각 문항의 요인부하값은 대체로 적절한 수준이었으며, 이들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였다. 단, 아동 자료에서 외향성 측정 문항인 “말이 많다”의 경우, 요인부하값이 .19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반면, 부모자료에서는 이 요인의 부하값이 .51로 적절한 수준이었다.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몇몇 성격 요인간의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우호성과 개방성(아동: $r=.61$, 부모: $r=.27$,

표 4. 전반적인 모형 적합도

자료	X^2	df	RMSEA(90% CI)	CFI	TLI
아동자기 보고	229.28	125	.05(.04-.06)	.89	.87
부모 보고	274.70	125	.06(.05-.07)	.89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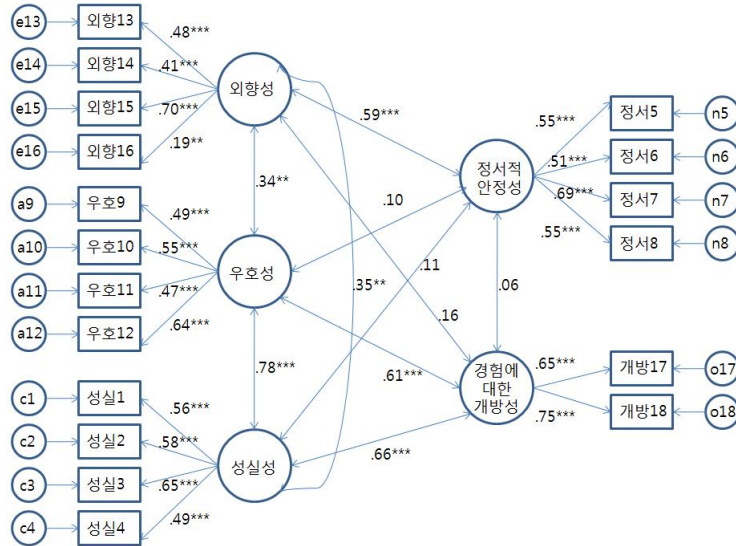


그림 1. 아동용 성격 5요인 검사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아동 응답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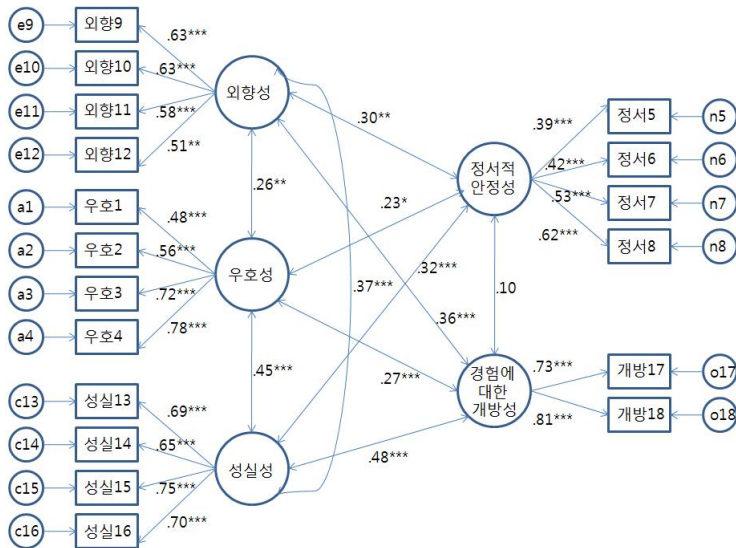


그림 2. 아동용 성격 5요인 검사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부모 응답자료)

$p < .001$), 우호성과 성실성(아동: $r = .78$, 부모: $r = .45$, $p < .001$), 성실성과 개방성(아동: $r = .66$, 부모: $r = .48$, $p < .001$), 그리고 정서적 안정성과 외향성(아동: $r = .59$, 부모: $r = .30$, $p < .01$) 등에서 상호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부모의 자료에서 아동의 경우보다 성격요인간의 상관계수가 높은 것에 주목할 만하다.

아동용 성격 5요인 검사에 대한 아동 및 부모 응답자료 간의 관계

아동이 평정한 성격 5요인과 부모가 평정한 성격 5요인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 평가와 부모 평가간의 상관계수는 외향성($r = .36$, $p < .01$), 우호성($r = .24$, $p < .01$), 성실성($r = .38$, $p < .01$), 정서적 안정성($r = .32$, $p < .01$), 경험에 대한 개방성($r = .36$, $p < .01$)으로, 대체로 중간 수준 정도의 상관을 보였다.

성격 5요인과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

아동의 성격 5요인과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

가설 1에서는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과 사회적 유능성 간의 정적인 관계를 가정하였다. 기대한 바와 같이,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이 높은 아동일수록 자신이 사회적으로 유능하다고 평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관계는 성격을 본인이 평가했을 때나 부모가 평가했을 때 모두 일관되게 나타났다(표 6 참조). 기존 연구들에서는 외향성과 우호성이 사회적 유능성과 가장 관련이 높을 것이라고 제안했으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성실성도 외향성과 우호성과 유사한 정도로 사회적 유능성을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아동이 평가한 개방성도 상대적으로 상관계수의 정도는 낮지만 본인이 평정한 사회적 능력과 정적인 관련을 보였다.

표 5. 아동용 성격 5요인 검사에 대한 아동 및 부모 응답자료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부모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	정서적안정성	개방성
아동	외향성	.36 (***)	0.05	.11 (*)	.18 (**)	.08
	우호성	.13 (*)	.24 (***)	.25 (***)	.06	.11 (*)
	성실성	.23 (***)	.04	.38 (***)	.07	.13 (*)
	정서적안정성	.02	.03	.05	.32 (***)	.00
	개방성	.20 (***)	.05	.23 (***)	.08	.36 (***)

* $p < .05$, ** $p < .01$, *** $p < .001$

표 6. 아동의 성격 5요인과 사회적 유능감 지표와의 상관계수 (N=334)

평가자	성격요인	사회적 능력 (자기평가)	학교에서의 사회적 적응성 (교사평가)
아동	외향성	.43(***)	.04
	우호성	.51(***)	.18(**)
	성실성	.42(***)	.21(***)
	정서적 안정성	.21(***)	-.10
	개방성	.21(***)	-.09
부모	외향성	.23(***)	-.01
	우호성	.23(***)	.21(***)
	성실성	.30(***)	.29(***)
	정서적 안정성	.18(**)	-.06
	개방성	.10	-.12(*)

* $p < .05$, ** $p < .01$, *** $p < .001$

또 다른 사회적 유능감 지표로 측정된 학교 장면에서의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급활동 등)에 대한 교사의 평가는 우호성 및 성실성과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이 변인이 외향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대신 성실성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평가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교사 고유의 시각이 아동의 사회적 적응성 평가에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들은 종합적으로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아동의 성격 5요인과 자기존중감과의 관계

기존 연구를 기초로, 가설 2에서는 성격 5요인 모두 자기존중감과 정적인 관련성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표 7의 결과에서 보

표 7. 아동의 성격 5요인과 자기존중감(아동본인평가)간의 상관계수 (N=334)

성격 요인	아동 본인평가 성격	부모 평가 성격
외향성	.32(***)	.23(***)
우호성	.51(***)	.15(**)
성실성	.48(***)	.28(***)
정서적 안정성	.34(***)	.19(***)
개방성	.32(***)	.13(*)

* $p < .05$, ** $p < .01$, *** $p < .001$

는 바와 같이, 아동의 자기존중감은 아동 본인이 평가한 성격 요인들뿐만 아니라, 부모가 평가한 성격 5요인들과도 모두 유의한 정적인 관계를 보여, 이러한 관계가 단지 공통방법에 의한 결과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의 성격 5요인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가설 3은 성실성과 학업성취도 간의 정적인 상관을 예측하였다. 기대했던 바와 같이, 성실성은 아동 및 부모 평가 모두에서 시험성적 및 교사가 평가한 학업성취도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표 8 참조). 성실성과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계수는 성실성 평가자와 학업성취도의 지표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났으나 .20-.43 정도의 계수를 보여, 과목에 따라 $r=.20-.24$ 를 보고했던 John 등(1994)의 결과나, $r=.19$ 를 보고했던 Shiner(2000)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흥미롭게도 부모가 평가한 성실성이 아동 본인이 평가한 성실성에 비해 아동의 학업성취도를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설로 가정하지는 않았으나, 우호성이 학업성취도와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격 5요인 검사와 외재화 문제와의 관계

우호성과 성실성이 아동의 외재화 문제와

부적관계를 보일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해, 부모가 평정한 K-CBCL로 측정된 아동의 외재화 문제와 성격 5요인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가 평가한 성실성과 우호성은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문제, 비행, 그리고 공격성 등의 모든 외재화 문제와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반면, 아동이 평가한 우호성은 사회적 미성숙, 주의집중문제 및 비행과, 그리고 성실성은 사회적 미성숙과 주의집중문제와만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 가설 4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정서적 안정성과 외향성도 일부 외재화 문제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성실성과 우호성에 비해서는 비일관적인 결과를 보였다. 단, 부모가 평가한 정서적 안정성은 외재화 문제와 보다 일관적인 관련성을 보였으나, 외재화 문제에 대한 평가를 부모가 했다는 점에 주의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표 8. 아동의 성격 5요인과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계수 ($N=334$)

성격요인	아동 본인 평가 성격		부모 평가 성격	
	학업성취도 (시험성적)	학업성취도 (교사평정)	학업성취도 (시험성적)	학업성취도 (교사평정)
외향성	.05	.06	.11	.11
우호성	.22 (**)	.23 (***)	.21 (**)	.23 (***)
성실성	.20 (**)	.27 (***)	.31 (***)	.43 (***)
정서적 안정성	.08	.10	.13 (*)	.10
개방성	.08	.06	.04	.04

* $p<.05$, ** $p<.01$, *** $p<.001$

표 9. 아동의 성격 5요인과 외재화 문제와의 관계 (N=334)

		외재화 문제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 문제	비행	공격성
아동	외향성	-.13 (*)	.01	-.05	.02	.01
	우호성	-.14 (**)	-.03	-.15 (**)	-.14 (*)	-.10
	성실성	-.17 (**)	-.08	-.18 (**)	-.04	-.03
	정서적 안정성	-.08	-.04	-.06	-.12 (*)	-.08
	개방성	-.03	.06	-.05	.03	.03
부모	외향성	-.14 (*)	-.11 (*)	-.10	.01	.10
	우호성	-.36 (***)	-.14 (*)	-.33 (***)	-.26 (***)	-.33 (***)
	성실성	-.45 (***)	-.17 (**)	-.50 (***)	-.34 (***)	-.30 (***)
	정서적 안정성	-.35 (***)	-.28 (***)	-.34 (***)	-.26 (***)	-.27 (***)
	개방성	-.10	.03	-.04	.07	.01

* $p < .05$, ** $p < .01$, *** $p < .001$

아동의 성격 5요인과 내재화 문제와의 관계

가설 5는 정서적 안정성, 성실성, 외향성, 그리고 우호성이 아동의 내재화 문제와 부적 관계를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표 10은 아동 성격 5요인과 부모가 평정한 K-CBCL로 측정된 위축, 신체증상, 우울 및 불안, 그리고 아동 본인이 보고한 우울 그리고 불안과의 상

관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기대한 바와 같이, 아동과 부모 평가 모두에서 정서적 안정성은 내재화 문제와 부적인 관계를 보여 가설 5를 지지하였다. 특히, 정서적 안정성은 아동 본인 평가와 부모 평가가 평가한 점수 모두에서 5개의 내재화된 문제 측정지표 모두와 부적인 관계를 보여 내재화된 문제를 가장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표 10. 아동의 성격 5요인과 내재화 문제와의 관계 (N=334)

		내재화 문제				
		위축 (부모평정자료)	신체증상 (부모평정자료)	우울/불안 (부모평정자료)	우울 (아동보고자료)	불안 (아동보고자료)
아동	외향성	-0.17 (**)	-0.06	-0.08	-0.26 (***)	-0.27 (***)
	우호성	-0.14 (**)	.02	-0.09	-0.38 (***)	-0.18 (**)
	성실성	-0.14 (*)	-0.05	-0.07	-0.31 (***)	-0.18 (**)
	정서적 안정성	-0.13 (*)	-0.18 (**)	.15 (**)	-0.35 (***)	-0.47 (***)
	개방성	-0.04	-0.00	-0.01	-0.17 (**)	-0.05
부모	외향성	-0.28 (***)	-0.13 (*)	-0.06	-0.13 (*)	-0.14 (*)
	우호성	-0.33 (***)	-0.08	-0.21 (***)	-0.11 (*)	-0.04
	성실성	-0.35 (***)	-0.15 (**)	-0.16 (**)	-0.21 (***)	-0.15 (**)
	정서적 안정성	-0.37 (***)	-0.36 (***)	-0.42 (***)	-0.21 (***)	-0.22 (***)
	개방성	-0.08	-0.05	.01	-0.04	-0.08

* $p < .05$, ** $p < .01$, *** $p < .001$

성격변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체적으로 이들 성격 요인이 부모가 관찰한 아동의 내재화된 문제보다는 아동 본인이 보고한 내재화된 문제를 더 잘 예측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내재화된 문제의 특성상 부모조차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해석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성격 5요인을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들도 간편하게 평정할 수 있는 성격검사를 구성하고, 이 척도에 대한 타당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연구 1에서는 John 등(1994)이 개발한 Big-Five Scale for the California Child Q-Set의 44개 문항에 대한 초등학교 6학년생 본인과 그들 부모들이 평정한 자

료를 바탕으로 성격 5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18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연구 2에서는 독립된 표본의 응답 자료를 이용하여 이 척도에 대한 다양한 타당도 증거를 제시하였다.

우선, 성격 5요인 척도에 대한 초등학교 5-6학년 아동들과 그들의 부모의 응답자료를 각각 확인적 요인분석한 결과, 본 척도자료를 설명하는 데 의도한 바와 같은 성격 5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의 요인부하값도 대체로 본 척도의 타당도를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단, 예외적으로 외향성 측정 문항인 “말이 많다”의 경우, 부모자료에서는 요인부하값이 적절하였으나, 아동 자료에서의 요인부하량이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이는 ‘말이 많다’라는 행동 특성의 의미가 아동과 부모에게 동일하지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적합한 새로운 외향성 문항을 개발하여 이 문항을 대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아동 성격 5요인 척도는 개방성을 제외한 모든 성격요인들의 척도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반면, 개방성 척도는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원래 개방성 요인을 측정하는 것으로 여겨진 문항들 중 지성(intellect)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성실성 등의 다른 성격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들과 묶여 이 문항들이 최종 척도구성에서 배제된 결과이다. 개방성 요인의 정의에 대해서는 성인집단의 경우에도 연구자들 간에 논란이 존재하며, 특히 아동의 경우에는 더욱더 일관성이 낮은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Shiner & Caspi, 2003). 따라서 연구자들에 따라서는 아동기의 개방성 요인을 구성하는 성격 특질들이 성인 집단에서의 개방성 요인과는 상이하거나, 혹은 개방성 특질이 아

동기에 아직 발현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Shiner, 1998). 향후 아동기의 경험에 대한 개방성의 정의 및 발달적 기원, 그리고 심리적 기능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개방성 요인의 구성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문항을 보충하는 작업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적은 수의 문항으로 구성된 아동용 성격 5요인 척도를 개발한 주된 동기는 그 실용성에 있다. 그러나 성격 5요인과 같은 수준의 성격 특질을 적은 수의 문항으로 측정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 중의 하나는 문항간 평균 상관계수와 문항 수의 함수로 계산되는 문항간 일치도, 즉, Conbach's alpha계수가 높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본 척도의 문항간 일치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재검사 신뢰도 및 평가자간 신뢰도 등 다른 방법으로 본 척도의 신뢰도를 추정하기 위한 작업이 향후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연구 2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중 눈에 띄는 점 하나는 일부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상당히 높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아동 자료에서 성실성과 우호성의 상관이 .78이었고, 성실성과 개방성간의 상관이 .66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보고되는 성격 5요인들의 척도 점수간의 상관계수보다 높은 것일 뿐 아니라(예: Graziano & Ward, 1992; Huey & Weisz, 1997; John et al., 1994), 연구 1에서의 탐색적 요인 분석 후의 요인간의 상관계수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해당되는 요인뿐만 아니

라 다른 4개의 요인들에 대한 요인부하가 허용되는 것에 비해,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이러한 2차, 3차 요인 부하를 모두 0으로 고정되었다. 따라서 부가적인 요인부하로 흡수되지 못한 문항간의 공변량이 요인간의 상관계수로 표현됨으로써 이와 같은 높은 상관이나 타난 것이라고 해석된다. 즉, 본 성격 5요인 척도로 측정된 성격 요인들간의 상관이 비정상적으로 높다기보다는 성격 5요인 지표들간의 공변량이 본래 높은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자료에서의 요인 간의 상관계수가 대체로 부모자료에서의 요인 간의 상관계수들에 비해 높았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아동들이 성인에 비해 성격 요인들에 대한 변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성격 5요인 척도에 대한 아동의 자기평정과 부모의 평정 간의 상관계수가 .24에서 .3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의 성격을 본인과 배우자나 친구와 같은 관찰자가 평가했을 때 수정하지 않은 상관계수가 .2 후반에서 .3대라는 기존 연구결과와 유사한 수준이다(예: Funder & Colvin, 1988; Wason, 1989; Mount, Barrick, & Strauss, 1994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낮은 평가자간 상관계수는 본인이 평가하는 성격과 타인이 평가하는 성격의 구성개념의 근본적인 차이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예: Barrick, Mount, & Judge, 2001). 즉, 본인이 보는 성격은 특정한 행동을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개인 내부의 구조, 역동,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 타인이 평정하는 성격은 한 개인이 보여주는 특정한 행동 양식의 경향성이라고 볼 수 있다

는 것이다. 이와 같이 평가자에 따라 성격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아동의 성격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찰자뿐만 아니라 아동 본인을 평정자로 이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단, 본 연구는 아동 성격을 아동 본인과 부모 중의 한 명이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각 차이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며, 또한 서로 다른 맥락에서 관찰하는 부모와 교사간의 지각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⁴⁾.

마지막으로, 시험점수 및 아동, 부모, 교사가 평가한 사회적 유능성, 자기존중감, 학업 성취, 외재화 및 내재화된 문제 등 아동기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양한 변인들과 본 검사로 측정된 성격 5요인 점수와의 관계들이 종합적으로 본 척도의 타당도를 지지하였다. 특히 단 4개의 문항(개방성의 경우에는 2개)으로 이루어진 본 척도로 측정된 성격 5요인 점수가 기존에 일반적으로 보다 많은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들의 예측타당도와 유사한 수준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본 척도의 효율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살펴본 아동의 성격 5요인과 관련 변인간의 관계들은 우리나라 아동의 성격 5요인을 둘러싼 법칙망(nomological network)을 확인해 줌으로써 이러한 연구에 관심 있는 관련 연구자들에게 좋은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본 연구는 성인 관찰자뿐만 아니라 아동 본인을 대상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타당한 성격 5요인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물론 신뢰롭고 타당한 측정도구를 개발한다는

4) 좋은 의견을 주신 평가자 분께 감사드립니다.

것은 한 두 개의 연구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없으며, 향후 지속적인 보완작업과 타당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검사-재검사 신뢰도 및 평가자간 신뢰도 등의 지표를 확인하는 작업이 추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아동 성격에 대한 연구자들의 높은 관심과 아동기의 주요 적응 결과에 대한 성격 5요인의 예측력을 고려할 때 본 척도가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의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곽해숙 (2010). 초등학생의 성격특성 5요인과 진로태도성숙도.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민정 (2006). 초등학생의 성격특성과 유머감각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창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봉화 (2009). 초등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위한 성격검사 타당화 연구. 진로교육연구, 22(1), 19-37.
- 김옥희 (2008). NEO 아동성격검사에 따른 초등학생의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진 (2009).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5요인 성격특성과 자기주도학습력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 (1997). K-CBCL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 출판사.
- 이경희, 고재홍 (2006). 유형별 초등학생 집단 따돌림 발생원인의 비교: 사회관계모형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1), 23-45.
- 이금화 (2010). 초등학생의 성격 특성과 가족의 기능적 특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혜, 신숙재, 송영주 (1992). 초등학교 3-6학년 아동을 위한 자아지각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논집, 6, 175-191,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 장휘숙 (1998). 애착과 정신증의 관계에서 자기관련적 변인의 중재역할.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1), 110-121.
- 정은영 (2002). 발달상담 프로그램이 아동의 성격 특성 및 자아개념 변화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수철, 이영식 (1990). 한국형 소아우울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29(4), 943-956.
- 조수철, 최진숙 (1989). 한국형 소아의 상태·특성불안척도의 개발. 서울의대정신의학, 14, 150-157.
- BarBarranelli, C., Caprara, G. V., Rabasca, A., & Pastorelli, C. (2003). A questionnaire for measuring the Big Five in late childhoo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 645-664.
- Barrick, M. R., Mount, M. K. & Judge, T. A. (2001). Personality and performance at the beginning of the new Millennium: What do we know and where do we go next? *International Journal of Selection and Assessment*, 9, 9-30.
- Block, J., & Block, J. H. (1980). *The California Child Q-set*.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 1969)
- Brown, G. L., Mangelsdorf, S. C., Agathen, J. M., & Ho, M. (2008). Young children's psychological selves: Convergence with maternal reports of child personality. *Social Development, 17*(1), 161-182.
- Caspi, A., Roberts, B. W., & Shiner, R. L. (2005). Personality development: Stability and chang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6*(17), 1-32.
- Caspi, A., Block, J., Block, J. H., Klopa, B., Lynam, D., Moffitt, T. E., & Stouthamer-Loeber, M. (1992). A "common-language" version of the California Child Q-set for personality assessment. *Psychological Assessment, 4*(4), 512-523.
- Church, A. T., & Burke, P. T. (1994).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tests of the Big Five and Tellegen's three- and four-dimensional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93-114.
- Costa, P. T., Jr., & McCrae, R. R. (1992). *NEO Personality Inventory-Revised (NEO-PI-R) and NEO Five-Factor Inventory (NEO-FFI)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De Fruyt, F., Mervielde, I., Hoekstra, H. A., & Rolland, J. P. (2000). Assessing adolescents' personality with the NEO PI-R. *Psychological Assessment, 7*(4), 329-345.
- De Fruyt, F., Bartels, M., Van Leeuwen, K. G., De Clercq, B., Ceuycper, M., & Mervielde, I. (2006). Five types of personality continuity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3), 538-552.
- De Pauw, S. S., Mervielde, I., & Van Leeuwen, K. G. (2009). How are traits related to problem behavior in preschoolers? Similarities and contrasts between temperament and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7*, 309-325.
- Digman, J. M. (1989). Five robust trait dimensions: Development, stability, and utility. *Journal of Personality, 57*(2), 195-214.
- Digman, J. M., & Shmelyov, A. G. (1996). The structure of temperament and personality in russian childr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2), 341-351.
- Gilles, P. Y., & Bailleux, C. (2001). Personality traits and abilities as predictors of academic achievement.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16*(1), 3-15.
- Gjerde, P. F., & Cardilla, K. (2009). Developmental implications of openness to experience in preschool children: Gender differences in young adult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45*(5), 1455-1464.
- Goldberg, L. R. (1990). An alternative "Description of personality":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216-1229.
- Goldberg, L. R. (2001). Analyses of Digman's child-personality data: Derivation of Big-Five factors from each of six samples. *Journal of Personality, 69*(5), 709-742.
- Gosling, S. D., Rentfrow, P. J., & Swann, W. B., Jr. (2003). A very brief measure of the Big-Five personality domain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7*, 504-528.
- Graziano, W. G., Jensen-Campbell, L. A., & Finch, J. F. (1997). The self as a mediator

- between personality and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2), 392-404.
- Graziano, W. G., & Ward, D. (1992). Probing the Big Five in adolescence: Personality and adjustment during a developmental transition. *Journal of Personality*, 60(2), 425-439.
- Halverson, C. F., Havill, V. L., Deal, J., Baker, S. R., Victor, J. B., Pavlopoulos, V., Bersergeris, E., & Wen, L. (2003). Personality structure as derived from parental ratings of free descriptions of children: The inventory for child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71(6), 995-1026.
- Huey, S. J. Jr., & Weisz, J. R. (1997). Ego control, ego resiliency, and the Five-Factor Model as predictors of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in clinic-referred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3), 404-415.
- Jensen-Campbell, L. A., Adams, R., Perry, D. G., Workman, K. A., Furdella, J. Q., & Egan, S. K. (2002). Agreeableness, extraversion, and peer relations in early adolescence: Winning friends and deflecting aggress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6, 224-251.
- John, O. P., Caspi, A., Robins, R. W., Moffitt, T. E., & Stouthamer-Loeber, M. (1994). The "Little Five": Exploring the nomological network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in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5, 160-178.
- Kanning, U. P. (200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german-language version of the 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ICQ).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2(1), 43 - 51.
- Krueger, R. F., Caspi, A., Moffitt, T. E., Silva, P. A., & McGee, R. (1996). Personality traits are differentially linked to mental disorders: A multitrait-multidiagnosis study of an adolescent birth cohor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3), 299-312.
- Lamb, M. E., Chuang, S. S., Wessels, H., Broberg, A. G., & Hwang, C. P. (2002). Emergence and construct validation of the big five factors in early childhood: A longitudinal analysis of their ontogeny in Sweden. *Child Development*, 73(5), 1517-1524.
- Lynam, D. R., Caspi, A., Moffitt, T. E., Raine, A., Loeber, R., & Stouthamer-Loeber, M. (2005). Adolescent psychopathy and the Big Five: Results from two sampl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3(4), 431-443.
- Malouff, J. M., Thorsteinsson, E. B., & Schutte, N. S.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nd symptoms of clinical disorders: A meta-analysi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7(2), 101-114.
- Markey, C. N., Markey, P. M., & Tinsley, B. J. (2003). Personality, puberty, and preadolescent girls' risky behaviors: Examining the predictive value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7, 405-419.
- McCrae, R. R., Zonderman, A. B., Costa, P. T., Jr., Bond, M. H., & Paunonen, S. V. (1996). Evaluating replicability of factors in the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versus Procrustes ro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 Psychology*, 70, 552-566.
- Mervielde, I., Buyst, V., & De Fruyt, F. (1995). The validity of the Big-Five as a model for teacher's ratings of individual differences among children aged 4-12 yea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4), 525-534.
- Measelle, J. R., John, O. P., Ablow, J. C., Cowan, P. A., & Cowan, C. P. (2005). Can children provide coherent, stable, and valid self-reports on the Big Five dimensions? A longitudinal study from ages 5 to 7.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1), 90-106.
- Mount, M. K., Barrick, M. R., & Strauss, P. (1994). Validity of observer ratings of the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9(2), 272-280.
- Parker, J. D., Bagby, R., & Summerfeldt, L. J. (199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5, 463-466.
- Parker, W. D., & Stumpf, H. (1998). A validation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in academically talented youth across observers and instrum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5, 1005-1025.
- Prinz, P., & Dekovic, M. (2008). Continuity and change of childhoo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through the lens of teache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5(1), 82-88.
- Quartier, V., & Rossier, J. (2008). A study of personality in children aged 8-12 years: Comparing self- and parent's rating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2, 575-588.
- Rammstedt, B., & John, O. P. (2007). Measuring personality in one minute or less: A 10-item short version of the Big Five Inventory in English and Germa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1, 203-212.
- Resing, W. C. M., Bleichrodt, N., & Dekker, P. H. (1999). Measuring personality traits in the classroom.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3, 493-509.
- Robins, R. W., John, O. P., Caspi, A., Moffitt, T. E., & Stouthamer-Loeber, M. (1996). Resilient, overcontrolled, and undercontrolled boys: Three replicable personality typ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1), 157-171.
- Robins, R. W., Tracy, J. L., Trzesniewski, K., Potter, J., & Gosling, S. D. (2001). Personality correlates of self-esteem.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5, 463-482.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Shiner, R. L. (1998). How shall we speak of children's personalities in middle childhood?: A preliminary taxonomy. *Psychological Bulletin*, 124(3), 308-332.
- Shiner, R. L. (2000). Linking childhood personality with adaptation: Evidence for continuity and change across time into late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310-325.
- Shiner, R. L., & Caspi, A. (2003). Personality difference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Measurement, development, and consequenc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4(1), 2-32.

1차원고집수 : 2011. 4. 10.

수정원고집수 : 2011. 6. 10.

최종게재결정 : 2011. 6. 17.

Validation Study of a Short Five Factor Personality Scale for Children

Sunhee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YoungImm Choi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Two studies were conducted to construct and to validate a short five factor personality scale for children, which can be used by children as well as adult raters. Study 1 selected 18 items to measure the five personality factors from Big-Five Scale for the California Child Q-Set(John et al., 1994) based on exploratory factor analyses on the data from 6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N=447$) and their parents. Study 2 collected data from another independent sample that is consisted of 5 & 6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N=334$), their parents, and their teachers.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on the data showed acceptable model fits and generally adequate factor loadings.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related variables provided additional construct validity evidence. Taken together, the results support the validity of this short five factor personality scale for children.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nd limitations as well as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Five factor model of personality, children, validation, personality test, factor analysis, academic achievement, social competence, self-esteem,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disorder